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진다**

### 현대인 생활에 맞는 법회로

오늘날 한국불교가 기복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는 사찰들이 기도위주의 법회를 운영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나마 일부 사찰에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거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사찰의 모습은 지금보다 달라져야 한다.

우선, 사찰에서 열리는 초하루, 보름, 재일 법회가 주말법회로 바뀌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초하루, 보름, 재일 법회는 농경사회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현대 생활리듬과는 맞지 않는다. 불자들이 가난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따라서 주말에 법회를 개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말 독경과 염불이 필요하다. 우리말 독경과 기도, 염불은 바른 수행풍토를 조성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다 많은 사찰이 사찰공간을 활용해 각종 문화강좌와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이 법점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는 교묘의 가장 큰 장애다. 사찰이 배움의 쉼터, 문화공간의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사찰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열리지 않고는 보다 많은 이들을 사찰로 불러들일 수 없다. 불러들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문화강좌와 교양프로그램은 좋은 방법인 것이다. 사찰이 더 이상 일부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각 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축원 시간·계승·내용 등 검토되어야 한다. 축원, 발음권 위주... 생활리듬과 안맞아

이와 함께 각 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축원 시간·계승·내용 등 검토되어야 한다. 축원, 발음권 위주... 생활리듬과 안맞아

소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자교실' '글쓰기 지도' '생활예절'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불자들의 자녀로부터 시작해 일반인들의 자녀들까지 확대한다면 불교와 사회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찬불가' '불교 구연동화' '레크리에이션' 등을 보급한다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이사장 휴명 정사는 "중조인 회당 대중사의 유지로 시작된 교육불사가 올해로 55년을 맞았다"며 "덕이 존경받고 사회의 가치기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만수(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 어디까지 왔나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이하 승개추)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련한 제도개선안의 초안이 최근 공개됐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조차 승개추 제도개선의 의미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어 당초 예정

기초(행자)교육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2년으로 대폭 늘인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 또 기본과정을 마치고 정규 학사학위 전문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승개추는 이를 위해 상설 행사 교육장 마련, 중앙승가대의

이 단순한 '개선'의 정도가 아니라 '개혁'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위의 초안대로라면 기초·기본·전문교육과정 전체시스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11월 21일 열린 전국강원교직자연수에서 나타났듯이 승개추 안에 대한 강원 교직자들의 거부감은 상당한 수준이

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도개선안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는 문제 역시 쉽지 않다. 출가 본사와 은사들이 부담하던 스님들의 교육비용 증가, 집단 교육에 드는 대규모시설과 이를 운영해나갈 행정체계, 석박사급 전문 교

## '선교육 후득도' 원칙 전제조건 '산적'

됐던 내년 상반기 입법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제도개선안 내용은?

승개추가 11월23일 제2차 승개추 회의와 제도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지안)에서 검토한 개선안의 골격은 출가본사에서 3개월 행사생활, 2년 기초(행자)+2년 기본교과과정(강원)을 통과 후 학사학위(사미)나(사미)를 수여, 다시 석사(전문)과정 2년(비구)나(비구)를 마치는, 6년 후에 정식 스님을 배출하는 안이다. 현 승가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 기초교육기간 연장 가장 큰 과제

#### 시설·비용·인력 등 준비사항 많아

확대 개편, 일부 강원외의 통폐합(사미 5곳+사미니 5곳)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 #무엇이 문제인가?

승개추회의가 이렇게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은 데는 사암의 성격이 승가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과 제도분과 실무위가 제안한 초안

수신 마련에 이르기까지 선결과제 대부분은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산적한 문제들에 앞서 승가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승가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한 추진위원 스님은 "승개추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육수체들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승가 구성원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조용수 기자

### "지행합일 교육 여건 만들터"

#### 진각종 회당학원 새 이사장 휴명 정사

"지행이 합일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불교와 진각종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학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제19대 회당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된 휴명 정사(진각종 대전교구)는 11월 22일 진각종 통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과 실천을 겸비한 학생들을 길러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새 이사장 휴명 정사는 "중조인 회당 대중사의 유지로 시작된 교육불사가 올해로 55년을 맞았다"며 "덕이 존경받고 사회의 가치기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생각은 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하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수급 문제"라고 지적하고 "특성화·지방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으로써 신뢰를 얻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하학교의 운영계획에 대해 법원에서 보완하고 지원받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제19대 이사장 휴명 정사의 취임식은 12월 중순에 위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기는 2006년 12월까지다.

휴명 정사는 1981년 득도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제 7, 8, 9, 10, 11대 종의회 의원, 89년 10대 중앙총회 의장, 97년 진각복지재단 이사, 2002년 31대 사암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 포교전략 좌담·공청회 개최

#### 조계종 포교원 별원승격 10주년 기념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별원 승격 10주년을 맞아 기념 좌담회와 향후 포교 전략을 수립하는 공청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 10년을 성찰하며 10년 내다보자'를 주제로 12월 7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좌담회는 김용철 교수(중앙승가대)가 사회를 맡고 지홍(불광사 회주), 정범(월정사 주지), 지광(능인선원

주지), 수불(안국선원장), 일관(포교부장), 진명 스님(연구실장), 이연오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전무 등이 좌담자로 참가한다.

포교 10대 전략 10대 과제를 선정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공청회는 12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박희승 연구자장(포교원)이 '조계종 포교 10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발제한다. 강지연 기자

### 조불련 서기장에 정서화 스님 임명



정서화 스님(사진)이 조불련 교도연맹(이하 조불련) 행정업무 총괄하는 서기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복지재단 한 관계자는 "중국 불교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정서화 스님은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남한 불교계에 보일 발언문을 작성하거나 남측 방문단이 왔을 때 안내를 맡는 등 조불련의 행정적인 일을 담당해왔다.

한편 황병준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에는 심상진 서기장이 임명됐다. 강유신 기자

### "찬불가 보급 방안 마련" 법장 스님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다.

법장 스님은 11월 23일 운문 스님의 예방을 받고 "종단차원에서 찬불가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403곡의 찬불가를 새롭게 만든 것은 위대한 불사"라고 운문 스님을 격려했으며, 운문 스님은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불자들에게 찬불가를 보급하고 싶다"며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도 "아직도 찬불가의 보급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전 사부대중에게 찬불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문 스님은 10월 13일 403곡이 수록된 찬불가 3권을 간행한 바 있다.

유철주 기자

### 환경영향평가 '도마' 위에 4일 예코포럼서 토론

동국대가 불교생태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창립한 예코포럼(공동대표 고건 권태준 홍기삼)은 12월 4일 오후2시 학술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첫 번째 쟁점토론을 개최한다.

이런 토론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예코포럼은 이날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화 양병이 교수의 사회로 △승영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승현(일양대 조경학) 교수의 '전성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대책'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국장 '환경영향평가기 바라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발표한다.

조용수 기자

본지 500호 24면 정천 스님 지상백과좌골 가운데 '돈을 놓고 탁자 밑에서 죽는 것' 부분 중 '돈'을 '도(道)'로 고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http://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불자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적멸보궁 통도사에서 가장 넓고 높으며 불키사의 한 법계진성의 희유법문인 화엄법문을 듣고자 청정일심으로 법석을 마련하여, 여러 고승대덕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산림 법회를 봉행코저 합니다.

화엄경과의 인연은 지혜와 복덕 그 광명의 문을 여는 힘이 될 것이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할 것입니다.

인연 있는 많은 불자들이 연화장 세계의 불보살님께 귀의할 수 있는 장엄한 법석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불기 2548년 1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합장**

**입재** — 2004년 12월 12일(일)(음 11월 1일) 10:00

**회향** — 2004년 1월 9일(월)(음 11월29일) 10:00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

**장소** 통도사 설법전

**회비** 1개월 동참비: 100,000원(비포 배부)  
반산림: 50,000원 영가동참비: 1위당 10,000원

**교통편 및 시간**

- 부산지역 • 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본사차량 및 관광버스
- 울산지역 • 공설운동장(07:30) → 학생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0) → 무거R(08:10) → 통도사(관광버스)
- 대중교통 • 부산노포동종합터미널,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문의 및 접수처** 통도사 회입전 (055)381-1288

**2004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음력	양력	요일	법사	법문하실 품
11/1	12/12	일	방장 초우스님 전계사 해남스님	입재법문 현담
2	12	월	지안스님	세주요염품
3	14	화	지안스님	여래현상품
4	15	수	재문스님	보현삼매품/세계성취품
5	16	목	강주 우진스님	화장계품
6	17	금	강주 우진스님	비로자나품
7	18	토	각성스님	여래명호품/사성제품
8	19	일	정우스님	광명각품/보살문명품/정행품
9	20	월	약산스님	오전법문생략/현수품
10	21	화	약산스님	승수미산정품/수미정성계찬품/실주품
11	22	수	해월스님	법행품/초발심공덕품/명법품
12	23	목	현진스님	승아미천공품/아미천공계찬품/실행품
13	24	금	지운스님	심무진정품
14	25	토	반산스님	승도술천공품/도술천공계찬품
15	26	일	월운스님	심회향품 제5까지
16	27	월	철우스님	심회향품 제6~제10
17	28	화	원산스님	심지품
18	29	수	법산스님	심정품
19	30	목	화교스님	심통품/심인품
20	31	금	수진스님	아승지품/수량품
21	1/1	토	진철스님	제보살주저품/불부사의품
22	2	일	자광스님	여래십신상품/여래수호광명공덕품
23	3	월	기후스님	보현행품
24	4	화	무관스님	여래출현품
25	5	수	종범스님	오전법문 생략/이세간품
26	6	목	종범스님	입법계품(7) 휴사우바나까지
27	7	금	종광스님	입법계품8 비록구산선인-31비산사연주아산
28	8	토	전계사 해남스님	입법계품/32보덕정광주아산/40구바나
29	9	일	전계사 해남스님	입법계품(41)마미부인-50유덕녀-51미복보살 회향법문